



##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김정현 3771-9351  
[jh.kim@iprovest.com](mailto:jh.kim@iprovest.com)

### [Spot Comment] 오미크론(Omicron) 변이를 둘러싼 몇 가지 의문

- Omicron 변이가 인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결론을 내기에는 이른 상황. 전파력이나 치명률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
- 변이에 대한 효능은 백신/항체치료제 상업적 성과에 중요한 요인. 몇 주 내로 쏟아질 효능 데이터에 주목해야
- 경구용 치료제는 Omicron에 대해서도 일정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유지할 가능성 높아. 다만 최근 MSD의 Molnupiravir의 낮아진 효능이 보고된 만큼 경쟁 치료제인 Pfizer의 Paxlovid에 대한 관심 더욱 높아질 것
- **변이 확산은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국내 진단 기업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참고로 지난 6월 델타 변이 확산 당시 쉐젠 주가는 단기간에 약 40% 이상 급등한 바 있어

WHO는 새로운 COVID-19 변이 바이러스 B.1.1.529를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 VOC)로 지정하고 Omicron으로 명명. WHO는 남아공에서 11월 26일 처음으로 Omicron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 해당 검체는 11월 9일에 수거된 것. 현재까지의 예비 증거에 따르면 Omicron은 다른 VOC에 비해 1) 전파 속도가 빠르며 2) 재감염율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Omicron의 전파력이나 치명률은 수 주 이내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1. 오미크론(Omicron) 변이는 인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결론을 내기에는 이른 상황. 우선 Omicron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빠른 전파 속도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인지 남아공의 낮은 백신 접종률(24%)이 원인인지 불확실한 상황. 또한 다른 VOC 대비 Spike 단백질에 Mutation이 2배 이상 발생해 인류가 이미 획득한 적응 면역의 효능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맞음. 그러나 전 FDA 국장 Scott Gottlieb은 Omicron의 전염성이 기존 백신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혀. 또한 Imperial College London의 Wendy Barclay 교수는 때때로 많은 항체의 양이 낮은 항원-항체 Binding affinity를 보완할 수 있다며 현재 백신을 활용하는 것도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해. Moderna나 Pfizer가 수주내로 기존 백신의 Omicron 변이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한만큼 기존 방역 체계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 Q2. 현재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글로벌 백신/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은 앞으로 Omicron 변이 효능을 발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도 달라지게 될 것. 우선 Moderna나 Pfizer가 기존 백신의 Omicron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Omicron-Specific 백신의 조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 또한 미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았던 Eli Lilly의 항체치료제는 이후 변이에 대한 낮은 효능을 보이며 판매 중단 처분을 받기도. Eli Lilly가 중단 처분을 받은 이후 Regeneron의 항체치료제의 매출이 급증한 바 있어. 또한 3번째로 승인을 받은 GSK의 항체치료제는 보존성이 높은 Epitope을 표적으로 삼아 변이에도 유지되는 효능을 장점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글로벌 백신/항체 기업들의 코로나 제품이 변이에 따라 상이한 상업적 성과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 쏟아질 데이터에 주목해야.

**Q3. 경구용 치료제(항바이러스제)와 Omicron의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항바이러스제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일정한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는 알파/베타/델타 등 11종 변이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일정하게 유지한 바 있어. 따라서 현재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는 MSD의 Molnupiravir나 Pfizer의 Paxlovid의 효능은 Omicron 변이와 큰 관련이 없을 것. 그런데 문제는 MSD의 Molnupiravir 관련 FDA Advisory Committee 회의가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를 앞두고 11월 26일 MSD는 이전 대비 낮아진 효능 데이터(입원/사망 감소율 50%→30%)를 발표했다는 점. 경쟁 약품인 Pfizer가 발표한 Paxlovid의 입원/사망 감소율이 8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보다 MSD 대비 Pfizer의 경구용 치료제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시점

**Q4. 이번 Omicron이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주가에 미칠 영향은?**

이번 Omicron 변이 확산은 국내 진단 기업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델타 변이의 예를 들어본다면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씨젠의 주가는 6월 21일부터 재조명 받기 시작해 이후 7월 초까지 단기간에 약 40% 이상 급등한 바 있어. 특히 이번 Omicron 변이도 Delta 변이와 같이 새로운 키트 개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 수와 함께 진단 기업들에 새로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는 당사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 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1.09.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8.5	0.0	1.5	0.0

**[ 업종 투자 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